

<성서학과 사회과학의 소통 2>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서의 눈으로 보는 식량 문제-

양재훈*

Dedit fragilibus corporis ferculum,
dedit et tristibus sanguinis poculum,
dicens: Accipite quod trado vasculum;
omnes ex eo bibite.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dat panis caelicus figuris terminum;
O 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s.

-Thomas Aquinas, Sacris Solemnis.

1. 빵 한 덩이의 가격으로 19년은 정의로운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급속히 진행된 19세기 초의 산업화로 인해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왕정에 항거하던 프랑스 민중들은 혁명을 통해 자유를 찾기는 했으나, 이어서 들이닥친 자유주의적 산업화의 홍수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해야 했다. 여러 차례 혁명을 거치고 산업화 시대로 들어선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19세기 초, 프랑스는 자유로운 산업 활동의 보장을 통해서 산업을 진흥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양극화로 인해 한편에서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몸을 팔고 쓰레기를 뒤지는 다수의 빈민층이 등장하게 되었다.¹⁾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1729-1797)의 비판처럼, “지혜와 정의를 동반하지 않는 자유”가 “번영과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²⁾ 예외적으로 이 작품의主人公 장발장도 한때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고, 출소 후에는 팽띤느와 같은 또 다른 프롤레타리아를 돋는 ‘돌연변이’ 부르주아가 되지만 말이다.

이 작품에서主人公 장발장은 뺑 한 덩이를 훔친 대가로 노역 5년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뺑 한 덩이에 매겨진 이 ‘합법적’인 가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는 탈옥이라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그 저항에 대해 매겨진 또 다른 가격은 추가 14년으로, 결국 그는 뺑 한 덩이에 대한 값으로 19년을 비참한 노예로서 살아야 했다. 저항의 대가는 차치하더라도, 뺑 한 덩이에 대한 값으로 5년의 노역형이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물론 여기에는 순수한 뺑 한 덩이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것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뺑 한 덩이의 값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과하다.

뺑 한 덩이의 값으로 5년의 노동을 치른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할 법 하지만, 실제로 철저한 무한 자유 경쟁의 방임적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람이 컴퓨터나 인터넷, 스포츠 게임이나 소설책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먹거나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 이것을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이론에 따라 상품

1) 앙드레 모로아, 『프랑스사』, 신용석 역 (서울: 기린원, 1998), 419-426.

2)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이태숙 역 (서울: 한길사, 2012), 221-222.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의 원리에³⁾ 내어맡긴다면, 빵과 물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과 맞바꾸어야 할 정도의 가치로 상승하기도 한다. 우리 옛 속담처럼 “까마귀 똥도 약에 쓰려면 오백 낭이라”는 논리가 여기에 숨겨 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먹을거리의 정의를 무방비 상태로 내어 맡기는 순간, 소설 속의 장발장은 현실 세계로 뛰쳐나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잠재적 위험으로 다가온 사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절실히 실감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식량 문제를 성경적 시각에서 고민하고자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신 8:3) 살아야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마 6:11)라는 기도를 친히 하시고 우리에게도 명하신 예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겠는가?⁴⁾ 성경은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천하거나 속된 것으로 치부하여 무시하는 탈세속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도리어 먹을 것에 대하여, 먹을 것을 거두기 위하여, 그리고 먹을 것을 분배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삶의 실천적 고민과 결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따라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성경적으로 고찰하고 살핀다는 것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3) 애덤 스미스, 『국부론』, 유인호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2), 68-77.

4) 기독교의 현실적 참여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국의 신학에서 도 고민된 바였다. 이러한 예로 김준성, “기독교와 경제문제 「나로하여금 빙한하게도 마옵시며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오죽 일용할 식량을 먹여주옵소서」,” 「신학지 남」 12:1 (1930), 39-44를 보라. 그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각종 조합 결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로 관계하며 살아야 하는 한 인간(人間)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오늘날 세계의 식량 문제를 간략히 살피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식량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과 성서학의 소통이라 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논문이다. 앞의 논문에서 식량 문제 전문가인 이꽃임은 식량 문제를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망하였고, 이 논문은 같은 주제를 놓고 성서학적 차원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이 두 논문은 사회과학과 성서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들이 이 논문을 앞서 나오는 식량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문과 연결시켜서 보기자를 권한다.

2. 식량 문제

보릿고개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자취를 감춘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짚주림에 허덕이고 점심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지만, 보통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적어도 끼니를 때우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되는 단계는 벗어났다. 한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하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 자급도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표 1> 식량 자급도⁵⁾

분류/년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곡물 자급도 ⁶⁾	43.1	29.1	29.7	29.4	27.6	22.6
쌀 자급도	108.3	91.4	102.9	99.4	104.6	83.0

단위: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서울: 한라인쇄, 2012), 301-302.

이 정부 공시 지표는 우리나라가 식량을 얼마나 자급할 능력이 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일반적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1년 현재 22%를 겨우 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는 먹을거리의 78%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주식인 쌀 자급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 도표에 따르면 1990년 108% 남짓하던 쌀 자급률은 2011년 83%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83%라는 숫자가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며, 한국인이 주식으로 하고 있는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한국의 곳간이 아직은 넉넉하다고 느낀다.

또한 한국인의 식습관도 이러한 착시 현상에 한 몫을 한다. 한국인의 식습관은 과거 쌀에 의존하던 것에서 육류, 면류, 빵, 시리얼이나 파스타 등과 같이 고기나 밀가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변하였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2% 정도 감소하여, 1998년 도에는 99.2kg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75.3kg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69.8kg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⁷⁾ 한편 우리나라의 밀 자급도는 1990

5) 식량 자급도는 식량의 국내 총소비량을 국내 총생산량으로 나눈 것의 백분율을 뜻한다. 이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이 얼마나 충족시켜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다.

6) 곡물 자급도와 쌀 자급도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 곡물 자급도에는 인간이 섭취하는 각종 곡물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소비하는 각종 사료 등의 값어치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섭취하는 곡물의 양만을 계산하면 그 지표는 훨씬 올라가지만, 가축들의 소비량이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에게 귀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지표도 함께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계산 방식이다. 이 도표는 이러한 계산방식을 따른다.

년에서 2011년 통계치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많아야 1% 정도로 상당히 낮다.⁸⁾ 즉, 밀의 99%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쌀 대신 다른 곡물로 식습관이 전이되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인데도 그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막걸리를 만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 가운데 육류의 소비도 이러한 촉시 현상에 큰 역할을 한다. 식량 자급도는 쌀 자급도가 아닌 곡물 자급도 즉, 가축들이 소비하는 곡물에 대한 분량도 계산한다. 왜냐하면 가축들이 생산하는 육류나 유제품, 계란 등의 산물들이 결국 인간의 식량이 되며, 결국 인간이 소비하는 육류에는 이미 곡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량 자급도를 생각할 때 육류에 포함된 곡물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위기에 무감각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의 개체 수는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늘었다. 가축들의 주된 곡물이 콩과 옥수수인데 가축들의 마릿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사료의 자급도는 25%밖에 되지 않는다.⁹⁾ 즉, 이 75%의 가축용 사료의 대외 의존도가 궁극적으로는 식량 자급도에 포함이 됨에도, 당장 그 곡물이 인간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식량에 있어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식량 자급도는 상당히 낮은데도 사람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편적 인지가 시급한 상태이다.

7) 통계청, 「곡류별: 용도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e-나라지표.

8) Ibid.

9)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362.

<표 2> 가축 개체 수 변이

년도/분류	고기소	젖소	돼지	닭
1970	1,286	24	1,126	23,633
2011	2,950	404	8,171	149,511

단위: 천 마리.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342.

그렇다면 한국의 식량 자급도는 왜 이렇게 낮은가? 한국의 식량 자급도가 이토록 낮은 이유에 대하여 성진근은 농지 부족 문제와 이에 뒤따르는 낮은 농업 경쟁력으로 인한 세계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적한다.¹⁰⁾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상당히 가용도가 낮은 편이며, 농지 면적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식량 수급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농지 면적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었다.¹¹⁾ 또한 곡물에서 육류로의 식습관 변화도 그 중에 한 뜻을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과 식량 관련 관료들은 한국의 식량 문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¹²⁾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즉, 식량 안보(food security)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윤병선, 김철규와 김홍주는 한국의 곡물 수입이 세계 4대 메이저(major) 다국적 식품 기업들에 상당히 의존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메이저 기업인 카길(Cargill), 에이디엠(ADM), 번지(Bunge), 루이

10) 성진근, “글로벌 식량 위기와 한국의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세계농업』 152:4 (2013), 65-84(71-73).

11)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1985년에 1,375,000 �ектار였던 논의 경지 면적이 2012년에는 966,076 �ектар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통계청, 「전국 논밭별 경지 면적」, e-나라지표.

12) 박평식, 이상덕, “애그플레이션의 요인과 식량 위기 대응방안,” 『한국제농지』 20:4 (2008), 278-285. 박평식과 이상덕은 우리나라의 주곡(主穀)이 중단립종 쌀인데, 이 쌀은 전 세계 생산소비량의 10%, 교역량의 5%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며, 따라서 그 시장의 상당히 얇다(thin market)고 지적한다. 시장이 얇다는 것은 생산이나 무역 유통에 있어서 작은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도 그 시장이 무방비상태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취약점(vulnerability)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81).

드뤼프스(Louis Dreyfus)에 소백은 46.8%, 대두는 46.3%, 옥수수는 무려 62.4%를 절대적으로 수입하고 있다.¹³⁾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종자 생산에서부터 수퍼마켓까지” 모든 식품 관련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집단들이다.¹⁴⁾ 이것은 우리나라의 먹고사는 문제가 몬산토(Monsanto), 카길(Cargill) 등 몇 개의 다국적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 무역 시스템 대신에 지역 단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¹⁵⁾

그러나 식량 자급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자들은 식량 위기(Food Crisis)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명훈 등은 세 가지 지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식량 부족 지수(Food Shortage Index, FSI)가 세계의 식량 현상을 가장 잘 설명 해주며, 이 지수로 분석해 본 결과 식량 위기가 세계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 그 실례로 지난 2010년에 러시아에 큰 폭염 재해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식량 생산량이 40% 가량 감소 하였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이르는 기간에 해외로 식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런데 러시아는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었고, 러시아의 자연 재해와 이에 수반한 수출 금지 정책의 결과 여파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밀 가격의 60% 상승이라는 끔찍한 모습으로 이어졌다. 지구는 이미 지구 마을(Global)이 되었고,

13) 김철규, 윤병선, 김홍주,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96 (2012), 12-42.

14) 윤병선,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농업지배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14:1 (2004), 7-41(13-25).

15) 김철규, 윤병선, 김홍주,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36; 송원규, 윤병선,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위기-대안의 모색: 식량 안보에서 식량 주권으로,” 「농촌사회」 22:1 (2012), 265-310.

16) 이명훈, 이종하, 이충열, “식량 위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농촌경제」 35:3 (2012), 61-86.

다른 나라의 일이 단순히 강 건너 불난 남의 집의 사정으로만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식량 문제는 단순히 식량이 부족한 세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지구 어느 한편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성서와 식량 문제-생산

위에서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밀하였다. 여기에서는 식량 문제 현상과 그 해결을 위한 고민 방향을 성서적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식량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에 대한 성서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식량 문제는 식량 부족 문제와 식량 분배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식량이 부족한 이유로 제시되는 것들은 크게 곡물의 생산량의 감소와 활용 문제인데,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은 기후 변화와 절대 농지의 감소를 들 수 있다.

3.1. 환경 문제-누가 무지개의 언약(창 9:13-15)을 깨뜨렸는가?

지구 환경 전문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6도의 악몽』을 통해서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매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어떠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지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금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 상승할 때 지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¹⁷⁾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으며, 북극곰이 발을 디딜 장소를 찾지 못해 바다를 헤엄치며 헤매고 있는 모습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상징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북극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최초의 기후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남태평양의 섬 국가 투발루가 그러하다. 이 섬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여파로 점점 육지를 잃고 있으며, 지구 기온 평균 1도가 상승하는 때에 이 섬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발루는 2001년에 국토 포기를 선언하였고, 다른 나라에 기후 난민으로서 이주를 신청했지만, 정작 지구 온난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 선진국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투발루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시는 물로 살아있는 것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창 9:9-17)고 하시면서 그 증표로 주신 무지개이다. 그러나 무지개에 대한 투발루의 싱가누 할아버지의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의문이다.¹⁸⁾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심각한 요인이다. 지구 온난화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인간의 거주지가 사라지는 것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집터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지의 축소이다.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사막화를 야기한다. 또한 이것은 ‘적당한 때에 맞추어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신 11:14)가 마구 뒤섞여서 집중적으로 몰려서 내리게 한다. 연중 골고루 내려야 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고 표토층은 사라져서 농토의 유실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내려야 할 때에 정작 내리지 않아 가뭄이 오고, 이것은 모두 식량 문제로 직결된다. 앞서 언급한 2010년 러시아 가뭄이라든지 “건조한 대륙인 호주”에서 발생한 홍수 등은 모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이며, 이것은 모두 식량 문제로 드러났다.¹⁹⁾ UN의 식량 문제 전문가인 장 지글러가

17) 마크 라이너스, 『6도의 악몽』(서울: 세종서적, 2010).

18) EBS, “e-지식채널: Somewhere Over the Rainbow,” (2007. 9. 24.).

지적한 것처럼 매년 약 600만 헥타르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하라 남부 지역은 매년 5-10km씩 사막이 확장되고 있다.²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창조를 후회하시면서 대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셨다. 그러나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물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놓으셨다. “캐ш트”라고 표기된 무지개는 전쟁 도구인 활을 가리키기도 하며(영어에서 *rainbow*라고 하듯이),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다툼을 그치는 표시로도 이해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²¹⁾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다.

창세기 9장은 이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세기 1:22-30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창조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로 멸하신 후 노아의 방주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노아 방주의 생존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같은 말씀을 번복해서 하신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는다(창 9:1-3, 7).

그러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약속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19) 이철호, 『식량전쟁』(서울: 식안연, 2012), 160-161.

20)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영미 역 (서울: 갈라파고스, 2007), 107-109.

21) Gorden J. Wenham, *Genesis 1-15*, WBC, 1 (TX: Word Books, 1987), CD-Rom, comment on Gen. 1:13.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창 9:9-10, 표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신다. 그들은 모든 생물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이며(창 1:28),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그들의 먹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창 1:29-30).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동물들은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창 2:19). 첫 창조 시대에서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에 대해 절대적 상위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 이야기에서는 아담의 시대와는 달리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과 동등한 계약 당사자의 위치로 상승한다. 여기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공동 계약자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더는 독점하지 못한다.²²⁾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다른 피조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다. 하나님, 인간, 그리고 다른 생명체라는 세 계약 당사자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그 계약을 어겼으며, 먼저 활(bow)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파기의 대가는 오늘날 기후 문제와 삶의 터전,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허덕이며 근심해야 하는 결과였다. 인간은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그 계약을 신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흘어짐을 면하자.”(창 11:4)는 바벨탑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어 했던 인간의 교만(창 3:5-6)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도 “우리의 이름을 날리려고” 여전히 튀어나왔고, ‘옛날에는 뭣 모르고 당했지만 이번에는 안 당한다.’는 계획에 똘똘

22) 융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도리어 다른 피조물보다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자기 주체를 파악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닌가?”(욥 38:33a)-창세기 창조 신앙에 대한 지혜문학의 반성, 융기 38-41장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1 (2013), 103-129를 보라.

뭉치려 했으나, 그 결과는 흩어짐과 뒤섞인 혼돈(바벨)이었다.

식량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기후 문제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나 각종 기후 협약은 유명무실해졌고, 발전과 개발의 논리와 더불어 ‘너희들도 이전에 했으니 지구가 죽든 말든 우리도 한 번 해야겠다.’는 신흥 거대 개발도상국들의 욕심,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진국들의 비양심 사이에 벌어지는 치킨 게임으로 지구는 종말의 절벽을 향해 눈감고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 출발의 계약 당사자가 인간 외에도 모든 생명체라는 공동 계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겸허히 반성하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서히 해결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2. 식량 문제-누구를 위한 밥인가?

식량 부족의 문제 가운데 또한 제시되는 것이 사람이 먹을 식량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곡물 위주의 식습관에서 육류 중심의 식습관으로 변화하는 것이 식량 문제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에너지 재생 문제도 그러하다. 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6-8kg의 곡물이 필요하다. 소고기의 경우 600g의 고기를 만들기 위해 12.5kg의 곡물이 필요하다. 즉, 한 사람이 600g의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 덕분에 약 2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식량 활용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²³⁾ 그런데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육류 소비가 상당히 증가했고, 특히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서 그 증가 폭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엉뚱한 곳으로

23) 이철호, 이숙종, “글로벌 식량 위기와 한국의 대처방안,” 「식품과학과 산업」 44:3 (2011), 20-37(25).

흘러감을 말한다.

식량을 먹어치우는 것은 가축뿐만 아니라 자동차이기도 하다. 식량 부족의 큰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 연료 생산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바이오 연료라는 대체 에너지원이었다. 특히 원유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국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이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²⁴⁾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인간이 먹을 곡식을 위한 재배 면적은 축소되고 자동차가 먹을 곡식은 늘어나서 결국 인간이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식량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농지 감소인데, 그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기후 문제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위적인 농지 축소도 한 몫을 한다. 우리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도시를 개발하고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없애고, 편리하게 돌아다니기 위해 큰 도로를 건설한다. 그로 인해 많은 농지들이 사라졌으며, 절대 농지의 감소는 식량 생산의 감소로 직결된다.²⁵⁾

사람은 자동차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식량 없이는 살 수 없다. 선진국 사람들은 약간의 편의를 누리기 위해 곡식을 자동차에 먹이지만, 그 곡식은 후진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두레박 동아줄과 같은 절박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특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신도 먹고 자동차에게도 먹여 줄,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입맛을 돋우어 줄 고기에게도 먹여 줄 곡식이 있다. 자동차는 조금 덜 타도되고, 필요 이상의 도로는 굳이 건설하지 않아도 되며, 고기는 조금 덜 먹어도 되지만, 이 ‘배부른 사람들’은 개발과 발전이라

24) 이철호, 『식량전쟁』, 153-156.

25) 김준우, “지구의 현실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과학적 예언자들(4)-레스터 브라운, “식량대란의 쓰나미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 『기독교사상』 628 (2011) 212-226(218-221).

는 치장으로 합리화된 그 편리함과 혀끝의 감칠맛을 누리기 위해 ‘굶주린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

야고보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들에 대한 경고를 내린다.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약 2:15-16a) 사람의 문제는 단지 말만 하고 자신이 직접 도움을 주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야고보가 지적하듯 언행의 불일치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세 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먹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세 끼를 다 먹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무감각에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데, 그 실천은 정확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남을 돋는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나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 한다.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입고 어서 가서 밥 먹으라”는 말은 그 상대방이 없어서 못 입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안 입고 안 먹고 있다는, 혹은 ‘아무리 그래도 웬만큼은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현실 착각에서 비롯한다.

식량 부족 문제는 나의 여유로 인해 남의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형제의 굶주림을 본다면 나의 사치품을 줄여서 형제가 필수 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 자동차의 편리함과 고기의 감칠맛을 조금 줄이는 것이 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조금이나마 이루는 길이며, 성서는 그렇게 기꺼이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한다(약 2:14-17).

4. 성서와 식량 문제-분배

칠레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1908-1973)는 1973년 반군과 대치하다가 칠레 국민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라디

오 방송을 남기고 스스로 자살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소아과 의사였으며 깨어 있는 지식인이었다. 그는 칠레에서 어린이 영양실조가 심각함을 인식하였기에,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공약은 다국적 유제품 기업인 네슬레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 그 배후에는 남미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의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본주의 미국이 있었고, 결국 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반군들에 의해 아옌데의 꿈은 사라졌고, 칠레 어린이들의 꿈도 사라졌다. 굶주린 이들에게 공짜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죄악인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성서는 도리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을 악하게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탐욕 앞에서 그러한 자비의 행위는 악한 것이 되고,²⁶⁾ 아옌데와 같이 그것에 저항하는 자는 제거 대상이 된다.

위에서 필자는 식량 문제를 생산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살펴볼 것은 분배의 차원이다. 식량 문제에 있어서 생산의 차원도 중요한

26) WTO 체제 아래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식량 무상 원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식량이 무상으로 원조되기 위해서는 FAO의 “잉여 농산물 처분 규칙”(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을 따라야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식량 원조 행위로 인해서 수혜국이 타국에서 수입하던 식량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우려가 있으면 이 원조 행위를 실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식량이 원조 되기 위해서 공여국과 수혜국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을 FAO와 잉여농산물 처분협의 소위원회(CSSD)에 통보해야 한다. FAO는 그 통보 내용을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국가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식량 무상 원조가 가능하다. WTO도 농업 협정 10조 4항을 통해 식량 원조로 제공되는 농산물이 공여국의 상업적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은 FAO의 위와 같은 범례를 따른다. 즉,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자비의 법칙과 무역을 통해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맞닥뜨렸을 때 자본주의의 법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3세계 국가들의 원조 식량 배분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실질적 분배를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도 있지만, 경제적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원조국들의 탐욕도 함께 맞물려 있다. 원조 규칙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보려면 이명수, “식량원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시선집중 C&J」 95 (2010), 1-16을 보라.

요인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요인은 분배 문제일 것이다. 식량 부족 문제로 제시되는 여러 이유들 중 분배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인구 문제와 무자비한 자본주의적 탐욕이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분배의 차원을 성서적 관점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4.1. 인구 문제-맬서스의 인구 가설과 그 속임수

식량 위기(Food Crisis)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인구 증가 문제이다. 즉, 식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먹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의 효시는 토마스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의 인구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성공회 목사이자 경제학자였던 그는 1798년에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이라는 인구 법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그는 “인구는 기하급수적 비율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 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유명한 논리를 제시했다.²⁷⁾ 그는 인구 조절의 방안으로 두 가지 즉, “예방적 억제”(preventive checks)와 “긍정적/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s)를 제시했는데, 전자는 산아 제한으로 출산율을 낮추어서 인구 조절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망률을 높여서 인구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는 후에 자신의 이론을 보강하고 부제를 바꾸어 이 책의 수정판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성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예방적 억제보다는 적극적 억제 방안을 주장했는데, 인구를 적극

27) T.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Godwin, M. Condorcet, and Other Writers* (Electronic Scholarly Publishing Project, 1998; org. ed, London: St. Paul's Church-Yard, 1798), 1-11.

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의 손길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고 이로써 인구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난한 자들이 비위생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질병에 더욱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속히 죽도록 함으로써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²⁸⁾

멜서스는 이러한 주장의 말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잠깐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가 왜 가난한 자들이 빨리 죽기를 원했는지 그 속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사춘기 시절에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로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²⁹⁾ 그가 말미에 덧붙인 이 말은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논리이다. 없는 자들이 누릴(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있는 자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잉여 인간들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했는데, 저들이 어서 죽어줌으로써 나는 이제 마음껏 누리겠다는 것이다.

멜서스의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를 무의식적으로 깔고 오늘날 식량 문제를 접근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현상에 대해 자연이 스스로 인구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조나 지원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장 지글러는 멜서스의 이 이론이 분명히 틀린 이론임에도, 사람들이 그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논리를 폐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합리화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해주는 평계거리를 이 이론이 제공해주기 때문이

28) T. Malthus, “Of the Consequences of Pursuing the Opposite Mode,”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Or a View of Its Past and Present Effects on Human Happiness; with an Inquiry Into Our Prospects Respecting the Future Removal or Mitigation of the Evils which It Occasions*, 6th ed. (London: John Murray, 1826).
[\(<http://www.econlib.org/library/Malthus/malPlong30.html#Bk.IV,Ch.V>\)](http://www.econlib.org/library/Malthus/malPlong30.html#Bk.IV,Ch.V)

29) Ibid.

라고 지적한다.³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인가? 아니면 식량이 부족한 것인가? 만일 식량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다면, 맬서스의 세계관, 혹은 그것을 근저에 깔고 있는 위와 같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의 세계관을 수용해도 좋은 것인가?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절대적 수치로 따져봤을 때 인간은 현재 지구상의 인간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기준으로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131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 중에서 사료를 위해 사용되는 곡물이 35%,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산업용이나 기타 여러 모양으로 소비되는 곡물이 21%로, 이 두 부분에서 조금만 소비를 줄인다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말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가? 절대적 식량의 양이 부족하지 않다고 볼 때(우리의 작은 노력이 덧붙여진다는 전제 하에), 또한 식량의 절대적 증산을 위한 노력[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 식품(GM food)이나 농업 기술 및 농기계 개발,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이 계속된다고 볼 때 남은 과제는 분배 문제이다.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산과 관련한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굶어죽는 사람들은 여전히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분배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구는 식량과 관련하여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이다.

4.2. 경제적 효율성 논리의 허점

이철호는 가나 공화국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식량이 신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종속되는지 잘 보여준다.³¹⁾ 가나는 1957년에 영국으로

30)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42-43.

부터 독립한 국가인데,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국가이다. 가나는 원래 식량의 자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나라였는데, 1980년대 중반에 세계 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라 비교우위 경제 이론을 수용하였다. 비교우위 경제 이론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른다는 것인데, 한국의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보다는 전자 제품 등에 주력하여 그것을 수출하고, 농산품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미국 등지에서 수입해서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경제 정책에 따라 가나는 식량을 대거 수입했고, 그 시장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엄청난 지원금을 자국의 농민들에게 퍼부었다. 토마토도 이러한 효율성 논리에 따른 정책에 의해 EU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외국의 집중 공략에 당해낼 재간이 없던 가나의 농업은 그렇게 무너졌다. 서구 거대 자본국들은 커피나 카카오 등을 가나에서 싼 값에 수입하고 쌀과 토마토 등을 가나에 팔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커피나 카카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호품이지만, 쌀은 그들이 먹는 필수 식량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줄을 그럴 듯한 경제 논리에 속아서 내어준 것이다.

서구 제국주의 세계는 과거에 힘과 무력으로 제3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로 그러한 ‘무식한’ 방법으로는 더는 약소국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그들은 ‘점잖고 교양인다운’ 방법으로 약소국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신제국주의이다.³¹⁾ 그들의 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치, 경제, 영화, 음악, 학문 등 제반의 문화적 산물들이며, 식량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식량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의 악한 행태에 대해 이철호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데 바로 종자를 통한 영향력 강화의 심각성이다.

31) 이철호, 『식량전쟁』, 46-52.

32) 양재훈, “소통과 융합 시대의 성서학과 문화,” 『Canon&Culture』 7:1 (2013), 63-101(68-72).

세계 종자 시장에서 2007년 현재 몬산토가 23%, 듀폰이 15%, 신젠타가 9%의 점유율로서 이 세 개의 회사가 세계 종자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한다.³³⁾ 이들은 전 세계의 종자에 손길을 뻗었고, 한국의 경우 국내 종자 시장 70%를 점유하던 서울 종묘, 흥농 종묘, 중앙 종묘가 IMF 시절에 이들 외국 거대 회사들에게 다 넘어갔다. 이철호는 인도가 몬산토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한다. 몬산토는 다수확을 미끼로 인도에 자신의 BT 면화를 보급하였고, 인도의 토종 면화는 몬산토의 BT 면화에 의해 밀려났다. 그러나 BT 면화가 해충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인도 농민들이 다시 토종 면화를 심으려 했지만, BT 면화에 10년간 외면당했던 토종 면화의 종자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몬산토는 매년 가격을 올려서 나중에는 처음에 비해 640 배나 가격이 뛰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의 75%가 몬산토에게 로열티로 지불되니, 몬산토는 방석에 앉아서 인도의 돈을 긁어모으고 있던 것이다.

외국의 거대 종자 회사들의 특징 가운데 특이한 점은 이들이 농약 시장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몬산토는 종자를 개발하여 특허권을 내고 농민들에게 종자를 판매한다. 그리고 그 종자를 통해 수확한 씨앗을 다시 파종하지 못하도록 특허법으로 묶어놓아서 봄이 되면 다시 몬산토에게 새로운 씨앗을 모두 사도록 하였다. 또한 그 씨앗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농약에만 효과가 있도록 만들었다. 즉, 이들은 씨앗도 자신들의 씨앗만을 사고 농약도 자신들의 농약만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았다. 캐나다 농부 퍼시 슈마이저와 몬산토 사이의 소송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³⁴⁾ 이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그 돈을 받아냄으로써 인간의 탐욕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가늠하지 못하게 했다.

33) 이철호, 『식량전쟁』, 126-149.

34) Ibid., 135-143.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제3세계의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은 목숨이다. 그러나 ‘먹을 것이 남아도는’ 거대 식량 생산 수출국들에게 식량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은 식량을 무작정 생산하지도 않는다. 지글러가 지적했듯이, 농산품의 가격에 대한 투기 자본들의 장난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경제 논리 즉, 최대 이윤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삼고 있어서 가격 조절을 위해 일부터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한다.³⁵⁾ 선진국들은 뛰어난 정보력과 정치력, 그리고 축적해놓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독점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가난한 나라는 결국 앞서가는 국가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4.3. 성서와 분배

전술했듯이 식량 문제는 생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분배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분배에 있어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탐욕과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욕심이 만든 합작품이다.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 하고 자신의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그 욕심은 그들의 눈과 양심을 눈멀게 하고, 가난한 땅의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생존의 위협을 가져온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이 가진 욕심의 종국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약 1:15).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유혹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을 당하도록” 한다(딤전 6:9). 이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려서 멸망에 빠지도록 이끈다(딤전 6:10).

예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1)를 통해 인간 탐욕의 근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탐욕의 종국은 어떠한지 잘

35)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72-74.

보여준다. 이 어리석은 자는 오늘날 경제적 세계관으로 볼 때 도리어 긍정적 인물이다. 그는 많은 소출을 거둔 성공한 농업 경영인이다. 비유는 그가 악한 방법이나 남을 착취해서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그는 부지런히 일한 성실한 농부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사람을 본받을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눅 12:20)이라고 말한다.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비유는 흥미로운 언어유희로 그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부자는 계속해서 그가 일구어낸 것들을 “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내 소출을” 쌓아놓기 위해서(눅 12:17) “내” 곳간을 확장하고(눅 12:18a),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려고 한다(눅 12:18b). 그리고 “내 영혼”에게 “여러 해 동안” 즐기라고 말한다(눅 12:19).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장난을 하신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찾을 것인데”,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눅 12:20)?

이 비유는 ‘내 것-누구의 것’, ‘여러 해 동안-오늘 밤에’의 대조를 가지고 언어유희를 한다. 이 부자의 근본적 문제는 그의 소출이 모두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이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내 것’이라는 생각만이 가득하다. 탐욕은 이 부자의 눈을 가렸으며, 모든 것이 순전히 ‘자기 덕’에 이룬 것이라는 교만을 그의 마음에 채워주었다. 성서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조차 눈에 뵐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시 14:1).

성서는 탐욕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만, 나눔과 자비는 모두에게 생명을 준다는 점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한다(요 6:33).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며(요 6:33), 세상이 다시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한다(요 6:35).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성만찬을 가리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요 6:54).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크리스 솔lemnis(Sacris Solemnis)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의

성만찬은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내어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혜매던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던 것처럼(출 16장), 예수께서도 빈들에서 지친 무리들이 굶주려 쓰러질까 염려하여(막 8:2-3)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신다(막 6:35-44 par.). 빈들에서 군중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잘 간파했듯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의 희생 사건이다(요 6:51b).

성서는 식량과 관련해서 탐욕에 찌든 오늘날 자본주의적 계산법에 역행한다. 성서는 아무런 생존 방법이 없는 나그네 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흘려주며(룻 2:2-23), 가난한 이들에게 꾸어준 것에 대하여 빚 독촉을 하거나 이자를 금한다(출 22:25). 성서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줄 것을 명한다(신 24:12-13).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지급할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한다(신 24:15). 이러한 규율들은 적어도 인간으로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권만큼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받아야 함을 말한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 생존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는 뒤로 밀려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생존 문제이며,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9:5). 오늘날 식량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돈을 더욱 중시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태도가 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인간을 고통 가운데서 굶어 죽어가도록 만든다.

5. 나가는 말–요셉, 유형원의 상평창(常平倉), 그리고 존 웨슬리

총리 요셉은 이집트에 7년간 흉년이 들자 이전 7년의 풍년에 쌓아두었던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먹인다(출 47:13-26). 백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처음에는 돈을, 그 다음에는 가축들을, 후에는 밭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내다 판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다. 그런데 그의 지혜 덕분에 백성들은 죽음을 간신히 면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여 매년 소출의 20%를 바치는 ‘평생 빚쟁이’가 되었고, 흉년 덕에 재산을 불린 것은 바로 와 이집트 고위직들뿐이었다(출 47:20). 한편, 조선시대의 학자 유형원은 저서 『반계수록』에서 환곡미(還穀米) 제도를 언급하는데, 이 제도는 요셉이 백성들에게 했던 ‘쌀 놀이’와 같은 것이다 그는 이 제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 빚에 허덕이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질책하면서 백성들의 아쉬운 처지를 이용하여 국가가 배를 불리기보다는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백성들을 살리는 상평창 제도와 더불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였다.³⁶⁾

오늘날 지구의 식량 문제는 생산과 분배에서 각각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의 근본에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남의 어려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삼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산상수훈 제5강해에서 그러한 행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말한다. 그리고 그의 말은 요셉의 모습과 유형원의 주장 사이에 서서 오늘날 식량 문제를 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준다.

36) 유형원, “상평창 의창의 흉년 구제사업,” 『반계수록』 卷之七,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역 (서울: 누리미디어, 2001).

당신이 혹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무지를 이용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데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장사를 한다면, 혹시 당신은 당신이 파는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부풀려서 요구를 하거나 더 많이 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은 어린 아이나 상거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더 받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찌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뻔뻔스러운 착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히,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물건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정상 가격 이상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정상 가격 이상을 받아낸다면 당신은 정말로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³⁷⁾

<주제어>

식량 위기, 식량 안보, 성서, WTO, 지구 온난화

<Key Words>

Food Crisis, Food Security, Bible, WTO, Global Warming

* 접수일 2013년 8월 20일, 수정일 2013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13년 9월 7일

37) J. Wesley,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5, Sermon 20.4.7.

참고문헌

- 김준성, “기독교와경제문제 「나로하여금 빈한하게도마옵시며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오족일용할식량을 먹여주옵소서」,” 「신학지남」 12:1 (1930), 39-44.
- 김준우, “지구의 현실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과학적 예언자들(4)-레스터 브라운, “식량대란의 쓰나미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 「기독교사상」 628 (2011), 212-226.
- 김철규, 윤병선, 김홍주,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96 (2012), 12-42.
-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서울: 한라인쇄, 2012.
- 마크 라이너스, 『6도의 악몽』, 이한중 역, 서울: 세종서적, 2010.
- 박평식, 이상덕, “애플레이션의 요인과 식량 위기 대응방안,” 「한국제농지」 20:4 (2008), 278-285.
- 성진근, “글로벌 식량 위기와 한국의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세계농업」 152:4 (2013), 65-84.
- 송원규, 윤병선, “세계농식품체계의 역사적 전개와 먹거리위기-대안의 모색: 식량 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농촌사회」 22:1 (2012), 265-310.
- 앙드레 모로아, 『프랑스사』, 신용석 역, 서울: 기린원, 1998.
- 애덤 스미스, 『국부론』, 유인호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12.
- 양재훈, “소통과 융합 시대의 성서학과 문학,” 「Canon&Culture」 7:1 (2013), 63-101.
-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이태숙 역, 서울: 한길사, 2012.
- 왕대일,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욥 38:33a)-창세기 창조 신앙에 대한 지혜 문학의 반성, 읍기 38-41장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7:1 (2013), 103-129.
- 유형원, 『반계수록』, 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역, 서울: 누리미디어, 2001.
- 윤병선,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농업지배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14:1 (2004), 7-41.

- 이명수, “식량원조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시선집중 C&J」 95 (2010), 1-16.
- 이명훈, 이종하, 이충열, “식량 위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농촌경제」 35:3 (2012), 61-86.
- 이철호, 『식량전쟁』, 서울: 식안연, 2012.
- 이철호, 이숙종, “글로벌 식량 위기와 한국의 대처방안,” 식품과학과 산업 44:3 (2011), 20-37.
- 장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영미 역, 서울: 갈라파고스, 2007.
- 통계청, 「곡류별: 용도별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e-나라지표.
- 통계청, 「전국 논밭별 경지 면적」, e-나라지표.
- EBS, “e-지식채널: Somewhere Over the Rainbow,” 2007. 9. 24.
- Malthus, T.,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Godwin, M. Condorcet, and Other Writers*, Electronic Scholarly Publishing Project, 1998; org. ed., London: St. Paul's Church-Yard, 1798.
- Wenham, Gorden J., *Genesis 1-15*, WBC, 1, CD-Rom, TX: Word Books, 1987.
- Wesley, J.,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5,” *The Works of John Wesley: The Bicentennial Edition*; CD-Rom, Richard P. Heitzenrater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초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서의 눈으로 보는 식량 문제-

양재훈

(협성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지구가 당면한 식량 문제에 대한 성서적 반성을 한 글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가 처한 식량 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성서적 고찰을 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식량 문제에 대한 한국적 현실을 간단히 살피고,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지구가 해결해야 할 식량 문제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식량의 생산적 차원과 분배의 차원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생산적 차원에 관하여 이 논문은 기후 문제와 곡물 소비의 경향 변화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구 온난화는 식량 생산량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육류 위주의 식습관 변화와 바이오 에너지로의 곡물 사용 전환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창세기와 야고보서를 통하여 인간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이 논문은 식량의 분배 정의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일부 다국적 식량관련 기업들의 탐욕이 식량 문제에 위협이 됨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예수의 비유와 성만찬 사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신령기의 규정 등을 통하여 성서적 반성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임을 말한다.

<Abstract>

“Give Us Our Daily Bread”

: Food Crisi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biblical reflection on the food crisis that the world has faced. It firstly surveys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the food crisis in Korea, and argues that it is not a local but the global matter. It continues to deal with the food crisis in two aspects, productive dimension and distributive dimension. The productive dimension examines the global warming, the shift of the consumer's food consumption trend from grain to meat, and the increase of the use of bioenergy. The global warming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food production, and the rest two are major culprits of food crisis as they direct the food consumption from human to animals and machines. This article argues the responsible change of human attitudes with regard to this matter from perspectives of Genesis and James. It discusses the food crisis in terms of food distribution, and points out that the endless lust of some major food related multi-national companies increases the food crisis. This article makes a biblical reflection through Jesus parables, eucharist, and some regulations in Deuteronomy. It concludes that the lust of human beings should be considered in solving the food crisis.